

여름에 입는 여름옷감 섬머 워스티드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온습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양복을 입으면 끈적끈적하고 기분이 매우 불쾌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에 순응한 양복을 착용하려면 양복에 사용하는 원단이 그만큼 개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신사복의 본가인 런던의 여름과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개발이라 함은 상쾌한 피부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짜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않고 통기성이 있으며 가볍고 휘감겨서 몸에 붙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름철 옷감으로 사용되는 울 보일, 슈트에 사용되는 트로피칼 등은 제직사를 강하게 꼬아서 손촉감이나 피부 촉감을 상쾌하게 하고 고시와 하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실을 평직으로 설길게 짜면 실과 실 사이에 간격이 있는 직물이 된다. 그 외에도 이러한 옷감에는 잔털이 없기 때문에 상쾌한 청량감이 있다. 울이라고 하면 추동 옷감을 떠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여름에 입는 여름옷감은 섬머 워스티드라던가 쿨울이라고 부르는 원단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쿨울 옷감은 소모사 평직이고 추동 울 옷감은 능직이 많다. 면은 여름 소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것인데 면으로 만든 옷감은 평직이 많다. 면 평직을 두껍게 하면 덕이라던가 캔버스라고 하는 뽕뽕하고 무거운 원단이 된다. 옷감으로써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하여간 평직은 통기성이 높은 직물옷감을 얻기 위하여 아주 좋은 조직이다.

땀이 많은 여름철에 양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어쩐지 불쌍한 감이 든다. 원래 양모 슈트, 재킷 등은 짜는 듯한 더운 곳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유럽의 7월, 8월에도 우리 나라의 봄, 가을 같은 5월이나 10월과 같은 쾌적한 기온이다. 그렇게 쾌적한 곳에서 입는 옷을 열대의 마닐라와

같은 우리 나라의 여름철에 입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쾌할 리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거 환경만이 아니라 승용차에까지 냉난방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는 안될 것이나 냉난방이 안 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세일즈 맨 등은 한마디로 골치 아픈 일이다. 그렇다고 노타이에 셔츠차림으로 방문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러한 광경은 서울이나 싱가포르, 동경 등의 동남아시아의 수도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이렇게 입고 다녀야하는 것이 현실인지도 모르기에.... 여하튼 입고 있는 사람,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양모 옷감이 개발되었다. 만드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도 목면으로는 그 옷의 가치가 통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트로피컬, 폴라, 보일, 싱글의 이지직 조오젯, SZ단사를 사용한 개버딘 등은 여름용 소모직물 옷감이다. 이들 실의 대부분은 강연사이다. 양모직물의 옷감인 경우 이러한 실을 측면사라던가 크레이프사라고 부르고 있다. 크레이프사는 방적할 때에 꼬임이 걸려 있는 단사에 더욱이 꼬임을 주어 만든다. 단사에 주어진 꼬임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꼬임을 가하기 때문에 추연(추가 꼬임)이라고도 하고 있다. 강한 꼬임에 의하여 실이 오그라들어 천 속에서 실과 실 사이에 공간이 생겨 상쾌한 피부촉감과 피부에 떨어져 통기성이 좋음이 생기고 있다. (야말화지(野末和志))

그렇다면 도대체 양모복지는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2001년 11월 8일자 산업정보에 의하면 제일모직은 양복지 한벌감이 1,500만원이나 되는 최고급 양모복지를 개발했으며 제품명은 「 란스미어(LANSMERE)210 」 으로 방적기술의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양모 150수제품으로써 영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150수 양모복지라고 하면 양모 1g으로 150m의 모사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의 가늘고 부드러운 원사

로 제작한 것이며 모직물의 종주국인 영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것이다. 제일모직은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40년간 사용해 온 크롬 염색법 대신에 저온염색법을 사용하여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했으며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 직원들을 선별하여 작업을 전담하도록 했다. 제일모직 측의 설명에 의하면 150수 복지를 반도체에 비유하면 512MB에 해당하는 최고의 기술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순모복지 가운데 가장 섬세하고 부드러운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